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020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송 지 현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송 지 현

인 준 서

송지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2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 즉 자기애시대에 살며, 그 특징 중 하나인 자기과시에 나타나는 외모관리에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참여가 증가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조사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자기애성향은 자기의식적, 타인의식적의 2개 요인을 사용하였고, 외모관리행동은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로 5개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대인관계는 소극적태도, 타인의태도, 자기희생, 과관여, 자기중심성의 5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연령, 거주지, 결혼여부, 최종학력, 직업, 한 달 평균수입, 한 달 평균 외모관리비용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서울, 경기, 지방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 345명이다. 통계처리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30대, 지역은 경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여성, 직업은 학생,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월 평균 외모관리지출비용은 10만원 미만이 미비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체 신뢰도 계수에 있어서 자기에성향은 0.798, 외모관리행동은 0.889, 대인관계는 0.922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셋째, 자기에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에성향 중 자기의식적은 자기희생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식적은 헤어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성형관리는 소극적태도, 자기희생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의복관리는 자기의식적, 소극적태도, 과관여에 유의하였고, 헤어관리, 피부관리는 타인의식적과 대인관계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에서 자기에성향과 대인관계에서는 최종학력에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 거주지역, 결혼여부, 직업,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모관리행동은 모든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의식적이 외모관리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식적은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여섯째, 자기에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의식적은 자기중심성을 제외한 소극적태도, 타인의태도, 자기희생, 과관여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타인의식적에서는 대인관계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외모관리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극적태도와 자기희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관리는 타인의태도, 자기중심성에만, 헤어관리는 과관여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관리는 타인의태도에서만, 성형관리는 타인의태도, 과관여, 자기중심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20~50대 여성은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활동이 많아짐에 있어 대인관계가 활발해져 자신의 외모관리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20~50대 여성의 자기애성향을 파악하여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영향 관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패션과 뷰티 산업에 기여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II. 이론적 배경 | 3 |
| 1. 자기애성향 | 3 |
| 2. 외모관리행동 | 10 |
| 3. 대인관계 | 17 |
| III. 연구방법 | 22 |
| 1. 연구문제 | 22 |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23 |
| 3. 측정도구 | 24 |
| 4. 자료 분석방법 | 26 |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27 |
|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7 |
|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측정 | 29 |
| 3. 자기애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의 상관관계 | 38 |
|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 관계의 차이분석 | 40 |
| 5.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49 |

V. 결론5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 | |
|---|----|
| <표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23 |
| <표 2> 설문지 구성 | 25 |
|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 28 |
| <표 4> 자기에성향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 31 |
| <표 5> 외모관리행동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 34 |
| <표 6> 대인관계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 37 |
| <표 7> 자기에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 | 39 |
|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에성향 차이 | 42 |
| <표 9>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 45 |
| <표 10>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 | 48 |
| <표 11>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51 |
| <표 12> 자기에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54 |
| <표 13> 외모관리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58 |

I. 서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과도한 경쟁 구도는 국가, 사회, 집단이라는 가치보다 개인이 더 돋보이고 앞서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자기에가 강한 사람이라 말하며, 그 성향이 지나치고 과도하게 나타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인정받는 것을 삶의 가치로 생각하고,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애는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현상들이 지나치게 조직사회에 억매되었던 시대에서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변화 발전하고 있다(안지민, 2018). 또한 개인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자기애적 특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기애는 개인의 심리발달과 적응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최혜정, 장문선, 2010). 따라서, 우리는 자기애성향이 어느 시대보다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애성향은 사회와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뷰티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매력적인 외모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사회생활과 자신감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2003).

이러한 미적 표현은 여성의 사회진출 범위가 확대되고 경제적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더욱 다양해졌고, 시대적 미의 기준에 영향을 받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화장, 성형수술 등 자신의 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김성희, 2009). 따라서 외모는 자기애성향이 강한 여성에게 자기과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외모관리와 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기애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자신을 인정하고 대접해 주지 않으면 불안감을 경험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효현, 김정남, 2011). 즉 자신에게만 집중되고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은 20대 63.5%, 30대 64.7%, 40대 66.8%, 50대 66.7%로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을 볼 수 있다. 연령대별 차이는 40대,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미비한 차이를 나타냈다. 과거와 달리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있어 연령과 상관없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본 결과로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자기애성향이 외모에 대한 미적 기능만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0~50대 여성의 자기애성향과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에 대한 관계성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진출이 활발해져 경제활동이 가능한 2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애성향이 외적인 이미지 관리 정도와 사회활동이 많아짐에 있어 대인관계를 알아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자기애성향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뷰티 산업 마케팅 전략과, 나아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에성향

1) 자기에성향의 개념

자기애(Narcissism)는 물에 비쳐진 자신 모습에 도취되어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꽃인 나르키소스(Narcissus)의 이름을 딴 것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며,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Necke)가 1899년에 만든 말이다. 정신분석학적 용어로써 리비도(Libido)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애착하는 일을 일컫는다(두산백과, 1996).

자기애의 양성은 유아일 때 자신을 돌보는 양육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지지받지 못하였을 때,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타인에게 개방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실패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인격형성의 과정이라고 한다(김은혜, 2009, p.6).

자기애는 타인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는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게 되며, 타인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그들과의 상호 관계에서 사랑과 애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가치감을 느끼는 상호 교환적인 성숙한 형태의 자기애로 발전하게 된다(김혜정, 2008, p.21).

자기애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성격구조의 한부분이며 현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정숙, 2014, p.6).

자기애성향은 가정에서 부모의 과보호와 배려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인해 보다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인다. 또한 자기도취적인 성향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특성이 있다(박은정, 정명선, 2010, p.717).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쉽게 위협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며 감정적으로 변덕이 심하고(박세란, 2004, p.1), 다른 사람의 평가나 반응에 적절한 관심이 없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무례함을 주는지 자각하지 않아 오만하고 공격적인 면도 있다(최지현, 2011, p.17).

이와 같이 자기애란 개인주의적과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과시적이며, 자기가치관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2) 자기에성향 선행연구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정감과 자기 가치관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독특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차영희, 2009).

이러한 시대적 양상과 함께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 속에서 어릴 때부터 과보호를 받으며, 원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 없이 가질 수 있는 환경속에서 성장한 현대 젊은이들은 자기에적 성향을 가지기 쉽다(이윤조, 2002).

자기에성향에서 나타나는 행동변화는 다양하게 표출되는데 이러한 자기에성향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은영(2002)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에 대하여 확신이나 주장성, 자신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건강한 측면의 자기주도적 자기에라 하였고, 자신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본인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고, 타인의 평을 신경을 쓰는 부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의 타인의존적 자기에로 분류하였다.

임효선(2019)은 자기에가 높을수록 자신들의 기분이나 생각을 미용 소비가치로 나타나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자기에성향 중 자기주도적성향은 유행하는 미용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기에성향 중 타인의존적성향은 자신들의 기분이나 생각을 중요시하는 미용 소비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편이었으며, 외모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비쳐지는 모습에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외모관리를 한다고 하였다.

김해정(2004)은 자기에적 성향은 사회 각 분야에 깊이 자리 잡아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변화시켜 가고 있고,

자신의 의도나 목적에 맞추어 외모를 관리하는 모든 행동은 자기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종욱(2010)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비판과 비난에 민감하여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에 쉽게 상처받는 취약성이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는 웅대한 자기 환상을 보이거나 과시적인 면이 나타나는 내현적 자기애와, 타인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표면적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에서 깊이가 결여되어 타인을 보지 않고 자신만의 화려함에 빠져있는 외현적 자기애로 분류하였다.

박세란(2004)은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규인양식 연구에서 외현적 측면은 자존감이 높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긍정적으로 자기의 평가를 높게 나타나는 자신을 과대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현적 측면에서는 성공에 대한 자신의 노력과 업무 파트너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여 잘못 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적대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미옥(2014)은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대인애착을 연구하였는데 내현적 자기애 요인들 중에서 열등감/자기비하와 소심/과민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 거대 자기환상과 인정욕구/자기선망의 요인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하여 특별한 호의나 대우를 기대하는데,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을 인정하고 대접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권영란, 2002).

이은영(2013)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며 공감대가 부족하고, 착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자기애의 특징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두 유형은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손상된 자기표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방어형태는 다르다고 하였다.

강선희, 정남운(2002)은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고양된 자존감이 높고 부와 권력, 거만한 웅대성, 영민함에 대한 환상들과 특권의식 등 자신의 취약함을 보이지 않는다는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무가치성, 지나친 민감성과 취약성, 권력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강한 시기심, 만성적인 이상화에 대하여 갈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시사하였다.

김정숙(2014)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외현적 자기애는 건강한 성향을 지닌 반면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며,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최인선, 최한나(2013)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사회불안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위혜정(2008)은 내현적 자기애가 본인의 본 모습 보다는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좌절되었을 경우 심한 좌절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만 이것 또한 타인을 의식하는 습관 때문에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한수정, 권석만(2010)의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격은 내현적, 외현적 유형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평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특징 중 하나라 하였고,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는 명시적 수준에서의 자존감이 높으며, 자신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유제이(2018)는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외모관심도가 피부 및 모발 인식과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현대인의 자기에 성향은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보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자신의 만족도와 가치향상을 우선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강은영, 이영호(2006)의 연구에서는 ‘자기주도적’ 자기에와 ‘타인의존적’ 자기에, 자존감, 다차원적 자기개념, 일반적부적응, 우울, 불안, 적대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타인의존적’ 자기에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 생각과 정서가 대부분 차지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이나 주관적 불편함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자기가치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자기에성향을 지닌 자기주도적 자기에성향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김지윤(2013)은 자기에는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의복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기에성향이 강해질수록 자기만의 표현이 두드러지고 자기관리가 철저해지며, 그만큼 인상이나 외모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된다고 하였다.

유선미, 정재운(2011)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에 유형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집단은 상업적 정보원을 구매자로 선택하고 점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네일샵을 선택하고 재구매와 만족도, 구전의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타인의존적 집단은 정보원 이용과 구매점포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네일 서비스만족도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허준보(2012)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나르시시즘적 자기표현과 외모관리,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이 특별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에적 자기표현이 실제적 행동들간에 상관관계를 통하여 특권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페이스

북에서 글과 사진을 기재하면서 과시하려는 면과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은혜(2011)의 연구에서는 타인의존적 자기애보다 자기주도적 자기애가 외모관리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외모관리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 있는 자기주도적 자기애성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해정(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성향자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사회에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며, 만성적으로 지루함과 공허감을 느낀다. 또한 착취적인 타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자신의 정체감에 확신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자기애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매우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의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개인의 사회적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2. 외모관리행동

1) 외모관리행동 개념

외모는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신체의 용모, 얼굴, 화장, 헤어스타일, 몸매, 의복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보여 지는 모습을 말한다(강윤경, 2004, p.21).

외모는 처음 대면하는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경쟁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외모를 가꾸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행동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생활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김유성, 박옥련, 2009, p.808).

외모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보여지는 본 모습을 의미한다(국어사전, 1990).

아름다운 외모는 현대 사회 안에서 시대가 만든 높은 미적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모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류진아, 이지영, 2019, p.170).

외모관리는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과정이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방법인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외모를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외모 관리 행동이라 한다(양유나, 2016, p.17).

외모관리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보이기 위해 얼굴 모습, 건강 상태, 의복, 체격, 화장품, 소품, 액세서리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내면화시켜 나가는 행동을 말하고,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이승희, 박길순, 2011, p.1080).

외모관리행동은 패션과 뷰티 제품을 사용하여 자신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커버하여 자신을 시각적으로 최대한 돋보이게 하는 표현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외모를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연, 황진숙, 2016, p.280).

개인의 외모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행동으로서 자신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자아에 관한 정보이며, 외모를 통해서 자아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화장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타인을 향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박은아, 2003, p.107).

이처럼 미에 대한 욕구나 사회적 소통으로 인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외모관리를 하고 타인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며 인식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2) 외모관리행동의 선행연구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할 만큼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자신이 좋은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외모관리를 통해 보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노력 한다(엄현신, 2007).

과거에는 사회, 문화, 각 계층마다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지니고 있었고 일부의 사람만이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도록 압력을 받았고(황윤정, 2007), 현대의 소비 사회에서는 신체의 내적인 측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형적인 면에 치우쳐져 끊임없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정주원, 2006).

이러한 현상들은 여성이 자신의 외모에 있어 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으며,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수진(2006)은 외모관리란 본인의 일에 대한 사회적 능력, 원만한 대인관계, 신뢰 등으로 좋은 이미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서로의 상호관계 속에서 경쟁력이라는 믿음을 주며,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표출하는 한가지 방법이라 하였다.

현대사회인들은 외모를 보았을 때 매력적인 사람들은 행동의 모든 면에 대해 너그럽게 대하며 많은 친절을 베풀고 더 큰 신뢰를 가진다. 반면, 외모가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데 이상적인 외모관리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신효정, 2002).

외모는 첫 대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능력과 같은 특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전반적으로 외모는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모의 향상에 자신의 노력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의 신체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주관적인 상황, 감정, 행동방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기화 된다(강금미, 2018).

외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신의 경쟁력 향상과 외모комплек스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지향하고 있다(강영숙, 박현경, 2009).

서은혜(2011)는 자기에 성향과 화장의 심리적 효용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화장의 심리적 효용이 높게 나타났고, 자기에의 특성 중에 과시하려는 욕구를 외모로서 표현하는 자기에가 낮은 사람보다 자기에가 높은 사람은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의복태도와 화장태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자기에가 높을수록 외모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향숙(2012)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리행동과 올바른 식생활과의 상관관계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유행에 민감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으며, 본인이 알고 있는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정보를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한다고 하였다.

황윤정(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에성향은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신체는 자아실현을 위하여 개인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매력적인 신체는 자신감과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서 사회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엄현신(2007)의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나 준거집단에 의해서 특정적인 이미지를 강요받거나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심리적 감정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이미지와 자아 존중감의 심리적 감소 등 해결하기 위하여 체중조절, 운동, 피부관리, 미용성형, 화장, 등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의복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지각하고 자신의 타고난 외모와 신체적 결점을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추고 외모에 대한 정신적인 콤플렉스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외모관리이다(김현정, 2009).

김선희(2003)는 사회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을 사람들은 내면화하고 이상적 기준에 접근하기 위해서 의복, 화장 등과 같은 외모관리행동이 동기화되어 구체적 행동으로 이끌어낸다고 하였으며, 때로는 이상적인 미적 기준이 자신의 미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부정적인 자기의식과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며 다이어트와 이상 섭식행동, 성형수술 등의 무리한 외모관리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유진(2012)의 연구에서는 외모향상의 관한 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쾌락적인 즐거움과 자아실현감, 몰입감이었으며, 운동에 대한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능감과 쾌락적 즐거움, 자아실현감에서 참여빈도에 따라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대인관계에 있어서 역할적인 성향들은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의 외모가 사회문화적인 태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자신의 변화에 있어 심리적인 행복감의 매우 중요한 작용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희(2017)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업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서 직장인의 외모관리행동은

외적인 장식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대인관계 형성이나 타인의 호감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고애란, 이수경(2004)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능동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수용하고 사회의 미적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장, 피부관리, 다이어트, 의복, 악세서리 착용 등 외모관리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대인들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외모관리가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와 날씬한 몸매 등을 목표로 삼고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며 체계적으로 개인의 외모를 관리하는 일은 일종의 프로젝트 수행이 되기도 한다(김해선, 2017).

이민지, 정성이, 안미선(2015)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하여 인식이 높을수록 체중관리, 피부관리, 화장을 많이 한다고 나타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콤플렉스 점수가 높았으며 피부만족도와 얼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가 높을수록 헤어관리와 외모관심, 체중관리가 높게 나타났으며, 체중조절은 공통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을수록 나타난다고 하였다.

조선영(2014)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연령, 지각연령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연구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외모관리란 사회생활에서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더 이상 과시나 사치가 아닌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아끼는 일련의 행위들로 신체의 외적인 만족과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정과 부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유중(2010)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신체매력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이란 자신의 신체적 외모

에 대한 평가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하여 매력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키며,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천하는 주관적, 객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김인숙(2016)의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외모를 갖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현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외모관리가 사회생활의 필수 요인으로 인지된다. 또한 외모관리를 위한 소비행동이 각 개인의 일상적 삶과 사회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외모관리는 사회적 지위, 자신의 상황 등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행해지는 행위로 개인의 능력이나 평가가 좋아질수록 외모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증가되었고, 자신감과 만족감도 높게 나타났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증가하고, 외모는 만들어지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의식이 형성됨에 따라 외모관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이승희, 박길순, 2011).

이와 같이 외모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있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대인지향이 활발한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3. 대인관계

1) 대인관계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장석진, 2007).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며, 타인과의 관계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정민영, 2013, p.15).

대인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이고 인간의 본질적 측면이며 동시에 필연적인 사실이다. 인간이 서로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은 삶의 본래의 특성이다. 각 개인에 따라서 양적,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며, 결국 인간의 생활자체가 바로 대인관계인 것이다(권경미, 2009, p.43).

대인관계 형성과정은 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관계이며,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는 언어적요소, 비언어적 요소, 환경 지향적 행동 등이 교환된다(김문수, 2004, p.10). 이러한 교환은 피상적인 관계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향상함에 따라 대인관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명희(2014)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상호작용과 적절한 반응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개인의 적응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간관계는 인간과 인간이 상호간의 심리학적인 관계의 모든 측면을 지칭하며 학술적인 용어로 대인관계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박지환, 2012, p.7).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는 측면은 소수, 특히 두 사람 사이의 일대일적인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김유진, 2012, p.8).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타인과의 화합을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좋은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기술 등이라 한다. 이는 한 사회 내에서 집단의 협동 관계를 구축하는 개념이라 한다(김지훈, 2011, p.17).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는 생애전반에 걸쳐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사람에게 필연적이며 본질적인 요소로 보여진다.

2) 대인관계의 선행연구

모든 인류문화의 역사는 상호의존하는 인간관계의 연속이며, 현존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 생활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필연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인간으로 생존하고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할 타인이 필요하며 타인과의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 할 수 있다(박은희, 2014).

최근에는 사회구조가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해 대인관계가 더 중요하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맥이라는 단어가 넓고 친밀한 대인관계의 뜻으로 사회생활중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이명희, 2014).

이렇듯 대인관계는 각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하며 대인관계에 관한 선행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대인관계는 소수인이나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관계속에서 상호만족을 추구하는 관계를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거나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결핍과 부재, 왜곡을 말한다(최임정, 심혜숙, 2009).

이한우, 염동문, 이미희(2014)는 대학생의 정서인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자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며, 대인관계를 습득하는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스스로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조절 하는 것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 시사하였다.

김지훈(2011)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며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지에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라 정의하였다.

김규리(2016)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추구 이미지와 외모, 패션에 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성향이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 신체적 외모나 의복이 매우 중요한 도구임을 인식하며, 신체적 결함에 있어 보완, 수정하면서 현재 보여지는 스타일의 유행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장봉실(2017)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외모만족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연구에서 외모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적극적이고, 대인관계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의 양상은 한 개인이 가족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성격,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아형성, 개개인이 인간관계의 사실에 대한 지각 및 반응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강숙영, 2003).

김유진(2011)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주된 스트레스 원인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대인관계와 관련이 없는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정서의 문제나 학업 및 직업상의 문제들도 맥락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적인 어려움을 내재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박송이, 채규만(2012)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는 자기 비판적 우울 취약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순종적이거나 과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요구에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껴 모든 일에 관여하다 보면 오히려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시사하였다.

하종경(2009)은 호감을 주는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일에 대한 능력과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주고, 적절한 외모 관리는 원만한 인간관계 등에 긍정적 평가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김영선(2003)은 대인관계가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울 때 바로 이러한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보다 완성되고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반면 대인관계가 비효과적이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인간의 성장 발달은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양과 질에 따라 우리는 자기의 성장과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듯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대인관계는 모두가 맞는 과정이지만 사회적 활동과 여가 생활 및 생활양식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인관계는 외부환경이나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속해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기에성향과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자기에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자기에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라 자기에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6. 자기에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7. 외모관리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기애성향과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지는 서울, 경기, 지방의 20~50대 여성에게 2019년 10월 21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총 380명에게 배포하여, 35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13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 |
|---------|------------------------|
| 조사대상 | 20~50대 여성 |
| 자료수집 | 자기기입법 |
| 조사기간 | 2019년 10월 21일 - 11월 4일 |
| 배포 및 회수 | -배포한 총 설문지: 380부 |
| | -회수된 설문지: 358부 |
| | -제외된 설문지: 13부 |
| |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345부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2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자기애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수는 80문항이었다.

1) 자기애성향

자기애성향은 강은영(2002), 김해정(2008), 서은혜(201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요인 중 자기의식적, 타인의식적의 2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총 12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김현정(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요인 중 피부관리, 체중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 헤어관리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총 21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3)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2002), 김유진(201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요인 중 소극적태도, 타인의태도, 자기희생, 과관여, 자기중심성의 5가지 요인이 포함되었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총 4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4) 인구통계학적 변인

일반적 특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20~5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 평균 소득, 월 외모관리비용으로 분류하여 총 7문항으로 명목척도가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 측정변수 | 측정방법 | 출처 | 문항수 |
|----------|-------|-------------------------------------|-----|
| 자기애성향 | 5점 척도 | 강은영(2002) 김해정(2008) 서은혜(2012) | 12 |
| 외모관리 행동 | 5점 척도 | 김현정(2009) | 21 |
| 대인관계 | 5점 척도 | 김영환 외(2002) 김유진(2016) | 40 |
| 인구통계적 변인 | 선다형 | 연구자 | 7 |
| 합계 | | | 80 |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이용하여 자료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통계 기법으로 사용된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기애성향,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애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넷째,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각 요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대는 30대 27.8%, 20대 27.0%, 40대 25.2%, 50대 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경기 36.2%, 지방 32.8%, 서울 30.1%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상 50.4%, 고등학교 졸업이하 49.6%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의 경우 미혼 51.6%, 기혼 41.7%, 별거/이혼 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 27.8%, 전문직 24.1%, 주부 14.5%, 사무직 13.9%, 자영업 11.0%, 판매 서비스 직 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30.4%, 100만원~200만원 미만 28.7%, 200만원~300만원 미만 26.4%, 300만원 이상 14.5% 순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으로는 10만원 미만 32.5%, 10만원~20만원 미만 25.5%, 20만원~30만원 미만 18.8%, 30만원~40만원 미만 14.8%, 40만원 이상 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 분포

(N=345, %)

| 변인 | 항목 | 빈도(N) | 백분율(%) |
|--------------|----------------|-------|--------|
| 연령 | 20대 | 93 | 27.0 |
| | 30대 | 96 | 27.8 |
| | 40대 | 87 | 25.2 |
| | 50대 | 69 | 20.0 |
| 거주지역 | 서울 | 107 | 31.0 |
| | 경북 | 125 | 36.2 |
| | 지방 | 113 | 32.8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 171 | 49.6 |
| | 대학교 졸업이상 | 174 | 50.4 |
| 결혼여부 | 미혼 | 178 | 51.6 |
| | 기혼 | 144 | 41.7 |
| | 별거/이혼 | 23 | 6.7 |
| 직업 | 사무직 | 48 | 13.9 |
| | 판매 서비스직 | 30 | 8.7 |
| | 전문직 | 83 | 24.1 |
| | 자영업 | 38 | 11.0 |
| | 주부 | 50 | 14.5 |
| | 학생 | 96 | 27.8 |
| 월 평균 소득 | 100만원 미만 | 105 | 30.4 |
| | 100만원~200만원 미만 | 99 | 28.7 |
| | 200만원~300만원 미만 | 91 | 26.4 |
| | 300만원 이상 | 50 | 14.5 |
|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 | 10만원 미만 | 112 | 32.5 |
| | 10만원~20만원 미만 | 88 | 25.5 |
| | 20만원~30만원 미만 | 65 | 18.8 |
| | 30만원~40만원 미만 | 51 | 14.8 |
| | 40만원 이상 | 29 | 8.4 |

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측정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여, 공통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요인추출법으로 주성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정한 고유치 이상의 값을 가지는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요인회전은 베리맥스 (Varimax)회전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의 수용기준은 .50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KMO값이 .90이상이면 아주 높은 것이며 .50이하이면 변수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항목들간의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이상 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자기에성향의 차원

자기에성향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chi^2=969.231$ (Sig=0.000)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형성할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값은 0.825로 나타났다.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552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두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4문항이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3.4%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798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579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42.88%)은 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

다, 리더가 되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 책임하에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의식적’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20.53%)는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다가 때로는 너무나 좋아지는 등 나는 갈등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럴 경우 나도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준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인의식적’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개 요인들의 적재 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났고,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뢰도는 모두 > 0.5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자기애성향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 item | 자기애성향 | | 공통성 |
|---|----------------------------|--------|----------|
| | 자기의식적 | 타인의식적 | |
| 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 .818 | -.088 | .676 |
| 리더가 되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 .777 | .170 | .633 |
| 사람들에게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 .771 | .115 | .607 |
| 나는 어떤 결정을 내 책임하에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 .746 | -.101 | .566 |
|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 .722 | .176 | .552 |
|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 .679 | .448 | .662 |
|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다가 때로는 너무나 좋아지는 등 나는 갈등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 -.046 | .835 | .699 |
|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럴 경우 나도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준다. | .152 | .809 | .678 |
| 고유값 | 3.430 | 1.642 | |
| 분산(%) | 42.880 | 20.531 | |
| 누적(%) | 42.880 | 63.411 | |
| 신뢰도(Cronbach's α) | .856 | .579 | |
| 전체신뢰도 | .798 | | |
| KMO와 Bartlett 검정 | KMO=.825, $\chi^2=969.231$ | | $p<.000$ |

2) 외모관리행동의 차원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chi^2=2736.513$ (Sig=0.000)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형성할 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값은 0.866로 나타났다.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532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2문항이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5.77%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889로 나타났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7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16.06%)은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방법(단식, 절식, 약품사용)을 사용한다,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체중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2(14.56%)는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나는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인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나는 머리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헤어 영양 제품(헤어 에센스, 헤어 영양크림 등)을 자주 사용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헤어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3(11.98%)은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형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4(11.73%)는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복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5(11.43%)는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에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사용한다, 얼굴 피부마사지를 자주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부관리’로 명명하였다.

이 다섯 개 요인들의 적재 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났고,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뢰도는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외모관리행동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 item | 외모관리행동 | | | | | 공통성 |
|---|--------|--------|-----------|-------------------|----------|------|
| | 체중관리 | 헤어관리 | 성형관리 | 의복관리 | 피부관리 | |
|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 .792 | .106 | .125 | .076 | .030 | .662 |
| 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방법(단식, 절식, 약품사용)을 사용한다. | .789 | .169 | .139 | .189 | .124 | .721 |
|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 .721 | .137 | .236 | .003 | .032 | .596 |
|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 .707 | .146 | -.007 | .075 | .078 | .532 |
|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 .658 | -.045 | .017 | .460 | .169 | .675 |
|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 .116 | .774 | .077 | .018 | .148 | .640 |
| 나는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 .065 | .703 | .169 | .169 | .038 | .557 |
|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인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 .133 | .686 | .191 | .139 | .073 | .549 |
| 나는 머릿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 .266 | .657 | .069 | .305 | .237 | .656 |
| 헤어 영양 제품(헤어 에센스, 헤어 영양크림 등)을 자주 사용한다. | .077 | .542 | .130 | .176 | .481 | .579 |
|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 .108 | .172 | .826 | .116 | .149 | .760 |
|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 .171 | .119 | .812 | .083 | .097 | .718 |
|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 .124 | .202 | .781 | .205 | .104 | .719 |
|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 .171 | .142 | .084 | .795 | .069 | .693 |
|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 .104 | .329 | .091 | .752 | .135 | .711 |
|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 .128 | .128 | .265 | .708 | .124 | .619 |
|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에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 .105 | .197 | .079 | .079 | .868 | .816 |
|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사용한다. | .043 | .057 | .141 | .136 | .839 | .748 |
| 얼굴 피부마사지를 자주한다. | .334 | .354 | .171 | .113 | .515 | .544 |
| | 3.051 | 2.767 | 2.277 | 2.229 | 2.172 | |
| 고유값 | 16.058 | 14.563 | 11.983 | 11.731 | 11.434 | |
| 분산(%) | 16.058 | 30.621 | 42.604 | 54.335 | 65.768 | |
| 누적(%) | | | | | | |
| 신뢰도(Cronbach's α) | .830 | .803 | .821 | .760 | .763 | |
| 전체신뢰도 | | | .889 | | | |
| KMO와 Bartlett 검정 | | | KMO=.866, | $\chi^2=2736.513$ | $p<.000$ | |

3) 대인관계의 차원

대인관계에 대한 타다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chi^2=6798.969$ (Sig=0.000)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형성할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값은 0.912로 나타났다. 공통성을 점검한 결과 0.510 이상으로 변수의 요인분석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8문항이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2.58%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922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22.59%)은 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 한다,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당당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자리를 나는 자주 피한다,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나는 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나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극적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 2(13.44%)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나는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나는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나는 느끼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나는 느끼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나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나는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다 등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인의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 3(11.29%)는 나는 너무 잘 속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나는 너무 쉽게 따른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나는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나는 지나치게 애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희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8.06%)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나는 참견하고 싶어진다, 나는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정하거나 이용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관여’로 명명하였다.

요인 5(7.21%)는 나는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나는 받아주기 싫다, 의견차이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중심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다섯 개의 요인들의 적재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났고,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뢰도는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대인관계 질문지의 요인분석 결과

| item | 대인관계 | | | | | 공통성 |
|---|--------|--------|-----------|-------------------|----------|-------|
| | 소극적 태도 | 타인의 태도 | 자기 희생 | 과관여 | 자기 중심성 | |
| 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 .784 | .163 | .017 | .007 | .032 | .643 |
|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 .763 | .265 | .136 | .102 | .133 | .699 |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 .742 | .231 | .159 | .059 | .033 | .633 |
|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 .736 | .219 | .072 | -.047 | .188 | .632 |
|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 .733 | .301 | .197 | -.060 | -.066 | .674 |
|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 .732 | .164 | .252 | .121 | -.207 | .685 |
|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 .727 | .108 | .218 | -.007 | -.119 | .602 |
|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 .688 | .154 | .298 | -.010 | .011 | .587 |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당당하지 못하다. | .687 | .304 | .164 | .120 | .190 | .642 |
|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자리를 나는 자주 피한다. | .682 | .312 | .094 | -.027 | .276 | .647 |
|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나는 하기 어렵다. | .650 | .118 | .312 | .037 | -.107 | .546 |
|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나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 .648 | .318 | .017 | .032 | .234 | .578 |
| 다른 사람의 요구를 나는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 .642 | .768 | .101 | -.060 | .147 | .684 |
|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나는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 .628 | .767 | .092 | .106 | .149 | .708 |
|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나는 느끼기가 어렵다. | .622 | .754 | .042 | .174 | .119 | .748 |
|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나는 느끼기가 어렵다. | .616 | .725 | -.050 | .099 | .114 | .724 |
|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나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가 어렵다. | .605 | .706 | .036 | .117 | .138 | .605 |
|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나는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다. | .582 | .658 | -.049 | .287 | .085 | .604 |
| 나는 너무 잘 속는 편이다. | .578 | .130 | .829 | -.017 | .083 | .727 |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 .572 | .094 | -.064 | .763 | .041 | .046 |
|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 .569 | .205 | .206 | .733 | .053 | .122 |
|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나는 너무 쉽게 따른다. | .639 | .205 | .078 | .688 | .242 | .030 |
|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나는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 .582 | .284 | -.063 | .629 | .308 | .035 |
|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나는 지나치게 애쓴다. | .577 | .252 | -.120 | .593 | .275 | .070 |
|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나는 참견하고 싶어진다. | .510 | -.172 | -.016 | .154 | .700 | .219 |
| 나는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 .592 | .233 | .042 | .188 | .697 | -.112 |
|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롱하거나 이용한다. | .590 | -.047 | .203 | .097 | .694 | .296 |
|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 .622 | .084 | .270 | .180 | .611 | .149 |
| 나는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 .507 | -.141 | .098 | .157 | .215 | .739 |
|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 .646 | .178 | .166 | .084 | .178 | .700 |
|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나는 받아주기 싫다. | .589 | .283 | .400 | .059 | -.037 | .591 |
| 의견 차이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 .594 | -.097 | .203 | .029 | .485 | .572 |
| | .613 | 7.227 | 4.301 | 3.612 | 2.580 | 2.306 |
| 고유값 | 22.585 | 13.440 | 11.287 | 8.064 | 7.206 | |
| 분산(%) | 22.585 | 36.026 | 47.313 | 55.377 | 62.583 | |
| 누적(%) | | | | | | |
| 신뢰도(Cronbach's α) | .936 | .900 | .851 | .719 | .735 | |
| 전체신뢰도 | | | .922 | | | |
| KMO와 Bartlett 검정 | | | KMO=.912, | $\chi^2=6798.969$ | $p<.000$ | |

3. 자기에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자기에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 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 자기에성향 중 자기의식적은 자기희생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타인의식적은 헤어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와 성형관리는 소극적태도, 자기희생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 < .05$). 의복관리는 타인의식적, 타인의태도, 자기희생, 자기중심적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헤어관리와 피부관리는 타인의식적과 대인관계 전체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대인관계 중 소극적태도는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타인의태도와 자기중심성은 헤어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p < .05$). 자기희생은 자기의식적과 외모관리행동 전체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과관여는 헤어관리,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7> 상관관계분석

| 구분 | 평균 | 표준 편차 | 자기 의식적 | 타인 의식적 | 체중 관리 | 헤어 관리 | 성형 관리 | 의복 관리 | 피부 관리 | 소극적 태도 | 타인의 태도 | 자기 희생 | 과 관여 |
|--------|------|-------|---------|--------|--------|--------|--------|--------|--------|--------|--------|--------|--------|
| 자기 의식적 | 3.01 | 0.828 | 1 | | | | | | | | | | |
| 타인 의식적 | 2.48 | 1.001 | .204** | 1 | | | | | | | | | |
| 체중 관리 | 2.80 | 0.984 | .179** | .140** | 1 | | | | | | | | |
| 헤어 관리 | 2.87 | 1.012 | .253** | 0.009 | .385** | 1 | | | | | | | |
| 성형 관리 | 2.84 | 1.158 | .222** | .120* | .348** | .429** | 1 | | | | | | |
| 의복 관리 | 3.13 | 0.982 | .227** | 0.054 | .410** | .489** | .393** | 1 | | | | | |
| 피부 관리 | 3.08 | 1.115 | .115* | -0.078 | .342** | .511** | .357** | .370** | 1 | | | | |
| 소극적 태도 | 2.26 | 0.885 | -.463** | .145** | -0.067 | -0.098 | -0.076 | -.122* | -0.042 | 1 | | | |
| 타인의 태도 | 1.88 | 0.806 | -.164* | .289** | .145** | 0.031 | .128* | -0.100 | 0.017 | .621** | 1 | | |
| 자기 희생 | 2.68 | 0.895 | -0.057 | .229** | -0.036 | -0.040 | 0.055 | -0.003 | -0.063 | .448** | .207** | 1 | |
| 과 관여 | 2.24 | 0.822 | .250** | .478** | .129* | -0.021 | .213** | .111* | 0.008 | .170** | .312** | .393** | 1 |
| 자기 중심성 | 2.02 | 0.756 | .109* | .458** | .171** | 0.006 | .182** | 0.007 | 0.078 | .229** | .465** | .249** | .468** |

* $p < .05$, ** $p < .01$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의 차이분석

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8>과 같다. 먼저 연령과 거주지역, 결혼여부, 직업,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각 집단별로 자기애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각 집단별로 자기애성향 중 타인의식적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1$), 사후분석에서 타인의식적 요인은 20대>50대 이상 부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거주지역은 각 집단별로 자기애성향 중 자기의식적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1$), 사후분석에서 자기의식적 요인은 서울>지방과 경기>지방 부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최종학력은 자기애성향 부분에서 각 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결혼은 각 집단별로 자기애성향 중 타인의식적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1$), 사후분석에서 타인의식적 요인은 미혼>기혼 부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직업별로 구분한 결과 자기애성향 모두에 대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p<.01$), 사후분석에서 자기애성향 모두에 대해 각 직업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자기의식적은 학생>사무직, 학생>주부, 주부>판매 서비스직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

인의식적은 학생>전문직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각 집단별로 자기에성향 중 타인의식적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1$), 사후분석에서 1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부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각 집단별로 자기에성향 중 자기의식적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p<.05$), 사후분석에서는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 차이

| 인구통계적 변인 | | 자기애성향 | 자기의식적 | 타인의식적 |
|----------------|-----------------------------|-------|---------------|---------|
| 전 체 | | | 3.015 | 2.475 |
| 연령 | 20대 ^a | | 3.167 | 2.661 |
| | 30대 ^b | | 2.932 | 2.625 |
| | 40대 ^c | | 2.879 | 2.322 |
| | 50대 ^d | | 3.097 | 2.210 |
| | F | | 2.387 | 4.197** |
| 사후분석 | | | - | a>d |
| 거주지역 | 서울 ^a | | 3.083 | 2.509 |
| | 경기 ^b | | 3.147 | 2.572 |
| | 지방 ^c | | 2.805 | 2.336 |
| | F | | 5.706** | 1.743 |
| | 사후분석 | | a>c, b>c | -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a | | 2.939 | 2.582 |
| | 대학교 졸업이상 ^b | | 3.090 | 2.371 |
| | t | | -1.702 | 1.968 |
| | 사후분석 | | - | - |
| 결혼여부 | 미혼 ^a | | 3.075 | 2.666 |
| | 기혼 ^b | | 2.928 | 2.247 |
| | 별거/이혼 ^c | | 3.094 | 2.435 |
| | F | | 1.363 | 7.258** |
| | 사후분석 | | - | a>b |
| 직업 | 사무직 ^a | | 2.767 | 2.646 |
| | 판매 서비스직 ^b | | 3.206 | 2.317 |
| | 전문직 ^c | | 2.988 | 2.265 |
| | 자영업 ^d | | 3.114 | 2.289 |
| | 주부 ^e | | 2.587 | 2.310 |
| | 학생 ^f | | 3.286 | 2.781 |
| | F | | 6.520*** | 3.625** |
| | 사후분석 | | f>a, e>b, f>e | f>c |
| 월 평균 소득 | 100만원 미만 ^a | | 3.041 | 2.662 |
| | 100만원~200만원 미만 ^b | | 2.884 | 2.480 |
| | 200만원~300만원 미만 ^c | | 3.027 | 2.505 |
| | 300만원 이상 ^d | | 3.197 | 2.020 |
| | F | | 1.680 | 4.852** |
| | 사후분석 | | - | a>d |
|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 | 10만원 미만 ^a | | 2.832 | 2.482 |
| | 10만원~20만원 미만 ^b | | 3.042 | 2.500 |
| | 20만원~30만원 미만 ^c | | 3.167 | 2.538 |
| | 30만원~40만원 미만 ^d | | 3.167 | 2.412 |
| | 40만원 이상 ^e | | 3.034 | 2.345 |
| | F | | 2.406* | 0.252 |
| 사후분석 | | | - | - |

* p<.05, ** p<.01, *** p<.001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9>와 같다. 먼저 연령과 거주지역, 최종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 모두 각 집단별로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각 집단별로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p<.05$), 사후분석에서 체중관리 요인은 50대>20대 부분과 40대>20대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헤어관리 요인과 의복관리 요인은 50대>20대 부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피부관리 요인은 50대>20대 부분, 40대>20대 부분 및 30대>20대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그러나 성형관리 요인은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거주지역은 각 집단별로 외모관리행동 중 성형관리, 의복관리 및 피부관리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5$), 사후분석에서 성형관리 요인과 의복관리 요인은 서울>지방 부분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5$), 피부관리 요인은 서울>경기 부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최종학력은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및 피부관리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5$), 사후분석에서 체중관리 요인과 피부관리 요인만 대학교 졸업이상>고등학교 졸업 이하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결혼은 각 집단별로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서만 통계적으

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5$),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직업별로 구분한 결과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및 피부관리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1$), 사후분석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 요인만 전문직>학생, 자영업>학생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월 평균 소득은 각 집단별로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헤어관리, 의복관리 및 피부관리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5$), 사후분석에서 체중관리 요인은 200만원~3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100만원~2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헤어관리 요인은 200만원~3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고($p<.05$), 의복관리 요인은 200만원~3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부분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5$), 피부관리 요인은 30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100만원 미만 부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각 집단별로 외모관리행동 중 모든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01$), 사후분석에서는 각 집단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관리 및 의복관리 요인은 40만원 이상>10만원 미만, 30만원~40만원 미만>10만원 미만, 20만원~30만원 미만>10만원 미만, 10만원~20만원 미만>10만원 미만 부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표 9>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 인구통계적 변인 | | 외모관리행동 | | | | |
|---------------|---------------------------|--------------------|-----------------|---------------|--------------------|-------------------|
| | | 체중관리 | 헤어관리 | 성형관리 | 의복관리 | 피부관리 |
| 전 체 | | 2.798 | 2.867 | 2.840 | 3.131 | 3.084 |
| 연령 | 20대 ^a | 2.434 | 2.551 | 2.552 | 2.857 | 2.548 |
| | 30대 ^b | 2.819 | 2.896 | 2.955 | 3.215 | 3.118 |
| | 40대 ^c | 2.910 | 2.961 | 2.889 | 3.134 | 3.295 |
| | 50대 ^d | 3.116 | 3.136 | 3.005 | 3.382 | 3.493 |
| | F | 7.418*** | 5.116** | 2.792* | 4.272** | 12.449*** |
| 사후분석 | | d>a, c>a | d>a | - | d>a | d>a, c>a, b>a |
| 거주 지역 | 서울 ^a | 2.964 | 3.028 | 3.084 | 3.346 | 3.287 |
| | 경기 ^b | 2.758 | 2.773 | 2.800 | 3.099 | 2.880 |
| | 지방 ^c | 2.683 | 2.819 | 2.652 | 2.965 | 3.118 |
| | F | 2.422 | 2.035 | 4.009* | 4.331* | 3.981* |
| | 사후분석 | | - | - | a>c | a>c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a | 2.682 | 2.812 | 2.848 | 3.103 | 2.846 |
| | 대학교 졸업이상 ^b | 2.911 | 2.922 | 2.831 | 3.159 | 3.318 |
| | t | -2.179* | -1.011 | 0.132 | -0.525 | -4.010*** |
| | 사후분석 | | b>a | - | - | - |
| 결혼 여부 | 미혼 ^a | 2.701 | 2.848 | 2.790 | 3.082 | 2.981 |
| | 기혼 ^b | 2.849 | 2.835 | 2.824 | 3.169 | 3.155 |
| | 별거/이혼 ^c | 3.226 | 3.217 | 3.319 | 3.275 | 3.435 |
| | F | 3.272* | 1.488 | 2.157 | 0.573 | 2.203 |
| | 사후분석 | | - | - | - | - |
| 직업 | 사무직 ^a | 2.983 | 2.913 | 2.771 | 2.972 | 3.257 |
| | 판매 서비스직 ^b | 2.800 | 3.287 | 3.044 | 3.100 | 3.022 |
| | 전문직 ^c | 2.949 | 2.940 | 2.992 | 3.402 | 3.309 |
| | 자영업 ^d | 3.053 | 2.942 | 2.947 | 3.132 | 3.640 |
| | 주부 ^e | 2.740 | 2.744 | 2.827 | 3.073 | 2.993 |
| | 학생 ^f | 2.502 | 2.685 | 2.642 | 3.017 | 2.649 |
| | F | 3.105** | 1.974 | 1.135 | 1.830 | 6.249*** |
| | 사후분석 | | - | - | - | - |
| 월 평균 소득 | 10만원 미만 ^a | 2.510 | 2.575 | 2.651 | 2.921 | 2.632 |
| | 10만원~20만원 미만 ^b | 2.917 | 3.044 | 2.879 | 3.199 | 3.209 |
| | 20만원~30만원 미만 ^c | 3.114 | 3.081 | 3.040 | 3.341 | 3.311 |
| | 30만원 이상 ^d | 2.588 | 2.740 | 2.793 | 3.060 | 3.373 |
| | F | 7.801*** | 5.782** | 1.920 | 3.296* | 9.169*** |
| | 사후분석 | | c>a, c>d, b>a | c>a, b>a | - | c>a |
| 월 평균 외모 관리 비용 | 10만원 미만 ^a | 2.480 | 2.257 | 2.435 | 2.670 | 2.443 |
| | 10만원~20만원 미만 ^b | 2.707 | 2.902 | 2.746 | 3.163 | 3.011 |
| | 20만원~30만원 미만 ^c | 2.954 | 3.274 | 3.056 | 3.354 | 3.492 |
| | 30만원~40만원 미만 ^d | 3.204 | 3.435 | 3.346 | 3.660 | 3.647 |
| | 40만원 이상 ^e | 3.234 | 3.207 | 3.310 | 3.391 | 3.874 |
| | F | 7.660*** | 21.986*** | 8.448*** | 12.788*** | 23.151*** |
| 사후분석 | | e>a, d>a, c>a, b>a | d>b>a, c>a, e>a | e>a, d>a, c>a | e>a, d>a, c>a, b>a | d>b>a, c>a, e>b>a |

* p<.05, ** p<.01, *** p<.001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인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10>과 같다. 먼저 연령과 거주지역, 결혼여부, 직업,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각 집단별로 대인관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각 집단별로 대인관계 중 자기중심성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5$),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거주지역은 각 집단별로 대인관계 중 자기중심성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p<.05$), 사후분석에서 자기중심성 요인은 서울>지방 부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최종학력은 대인관계 부분에서 각 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결혼은 각 집단별로 대인관계 중 자기희생 및 과관여 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5$). 사후분석에서도 자기희생 및 과관여 요인은 미혼>기혼 부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p<.05$).

직업별로 구분한 결과 대인관계 중 소극적태도, 타인의태도 및 자기중심성 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5$). 사후분석에서 대인관계 중 타인의태도 요인만 사무직>학생 부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월 평균 소득은 각 집단별로 대인관계 중 소극적태도 및 타인의태도 요인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5$), 사후분석에서는 대인관계 중 소극적태도 요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부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각 집단별로 대인관계 중 자기중심성 요인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p < .05$), 사후분석에서는 각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0>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인관계 차이

| 인구통계적 변인 | | 대인관계 | 소극적 태도 | 타인의 태도 | 자기희생 | 과관여 | 자기 중심성 |
|---------------------------|-----------------------------|------|-----------|-----------|--------|---------|-----------|
| 전 체 | | | 2.259 | 1.881 | 2.680 | 2.240 | 2.020 |
| 연령 | 20대 ^a | | 2.219 | 1.762 | 2.783 | 2.387 | 1.989 |
| | 30대 ^b | | 2.400 | 1.948 | 2.800 | 2.297 | 2.122 |
| | 40대 ^c | | 2.154 | 1.860 | 2.521 | 2.066 | 1.845 |
| | 50대 ^d | | 2.248 | 1.976 | 2.572 | 2.181 | 2.141 |
| | F | | 1.293 | 1.240 | 2.263 | 2.600 | 2.830* |
| | 사후분석 | | - | - | - | - | - |
| 거주 지역 | 서울 ^a | | 2.308 | 1.958 | 2.710 | 2.224 | 2.150 |
| | 경기 ^b | | 2.227 | 1.873 | 2.708 | 2.360 | 2.038 |
| | 지방 ^c | | 2.246 | 1.817 | 2.619 | 2.122 | 1.878 |
| | F | | 0.257 | 0.847 | 0.380 | 2.547 | 3.643* |
| | 사후분석 | | - | - | - | - | a>c |
|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하 ^a | | 2.331 | 1.929 | 2.747 | 2.323 | 2.010 |
| | 대학교 졸업이상 ^b | | 2.187 | 1.834 | 2.614 | 2.158 | 2.030 |
| | t | | 1.513 | 1.088 | 1.378 | 1.872 | -0.245 |
| | 사후분석 | | - | - | - | - | - |
| 결혼 여부 | 미혼 ^a | | 2.281 | 1.858 | 2.798 | 2.375 | 2.046 |
| | 기혼 ^b | | 2.249 | 1.898 | 2.527 | 2.059 | 1.939 |
| | 별거/이혼 ^c | | 2.145 | 1.957 | 2.725 | 2.326 | 2.326 |
| | F | | 0.256 | 0.207 | 3.745* | 6.205** | 2.843 |
| | 사후분석 | | - | - | a>b | a>b | - |
| 직업 | 사무직 ^a | | 2.646 | 2.226 | 2.750 | 2.229 | 2.271 |
| | 판매 서비스직 ^b | | 2.031 | 1.939 | 2.594 | 2.200 | 2.042 |
| | 전문직 ^c | | 2.236 | 1.847 | 2.616 | 2.114 | 1.916 |
| | 자영업 ^d | | 2.283 | 1.921 | 2.860 | 2.138 | 2.224 |
| | 주부 ^e | | 2.292 | 1.833 | 2.450 | 2.165 | 1.790 |
| | 학생 ^f | | 2.129 | 1.729 | 2.774 | 2.445 | 2.018 |
| | F | | 2.745* | 2.609* | 1.386 | 1.824 | 2.934* |
| | 사후분석 | | - | a>f | - | - | - |
| 월 평균 소득 | 100만원 미만 ^a | | 2.102 | 1.749 | 2.624 | 2.319 | 1.926 |
| | 100만원~200만원 미만 ^b | | 2.463 | 1.958 | 2.835 | 2.197 | 2.056 |
| | 200만원~300만원 미만 ^c | | 2.319 | 2.055 | 2.650 | 2.275 | 2.132 |
| | 300만원 이상 ^d | | 2.075 | 1.690 | 2.543 | 2.095 | 1.945 |
| | F | | 3.810* | 3.667* | 1.559 | 0.988 | 1.445 |
| | 사후분석 | | b>a | - | - | - | - |
| 월 평균 외모 관리 비용 | 10만원 미만 ^a | | 2.206 | 1.798 | 2.606 | 2.158 | 1.955 |
| | 10만원~20만원 미만 ^b | | 2.363 | 1.769 | 2.831 | 2.330 | 1.974 |
| | 20만원~30만원 미만 ^c | | 2.227 | 1.938 | 2.656 | 2.192 | 1.931 |
| | 30만원~40만원 미만 ^d | | 2.217 | 2.072 | 2.621 | 2.235 | 2.137 |
| | 40만원 이상 ^e | | 2.290 | 2.080 | 2.661 | 2.397 | 2.405 |
| | F | | 0.458 | 1.988 | 0.893 | 0.854 | 2.753* |
| 사후분석 | | - | - | - | - | - | |

* $p < .05$, ** $p < .01$

5.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 대한 자기애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207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43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186, 타인의식적은 .106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157, 타인의식적 .108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의식적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체중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식적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체중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헤어관리 요인에 대한 자기애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256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6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320, 타인의식적은 -.045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262, 타인의식적 -.044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기의식적 요인만이 $p < .001$ 유의수준에서 헤어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성형관리 요인에 대한 자기애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235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55으로 확인되었으며, 잔

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288, 타인의식적은 .090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206, 타인의식적 .078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기의식적 요인만이 $p < .001$ 유의수준에서 성형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관리 요인에 대한 자기애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227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51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267, 타인의식적은 .00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225, 타인의식적 .008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기의식적 요인만이 $p < .001$ 유의수준에서 의복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관리 요인에 대한 자기애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155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24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184, 타인의식적은 -.11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137, 타인의식적 -.106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기의식적 요인만이 $p < .05$ 유의수준에서 피부관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복 이미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화장과 마사지를 많이 하는 사람을 자기애적 성격이 강한 사람으로 일컫는다는 김해정(200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김종욱(2010)의 연구에서는 의복관리와 몸매관리, 화장/헤어관리의 외모관리행동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1>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상수) | B | SE | β | t | sig. |
|----------------|---|-------|------|---------|--------|---------|
| 체중 관리 | (상수) | 1.975 | .217 | | 9.103 | .000*** |
| | 자기의식적 | .186 | .064 | .157 | 2.900 | .004** |
| | 타인의식적 | .106 | .053 | .108 | 1.991 | .047* |
| | R=.207 R ² =.043 F=7.687** | | | | | |
| | (상수) | 2.015 | .220 | | 9.143 | .000*** |
| | 자기의식적 | .320 | .065 | .262 | 4.902 | .000*** |
| 헤어 관리 | 타인의식적 | -.045 | .054 | -.044 | -0.830 | .407 |
| | R=.256 R ² =.066 F=12.031*** | | | | | |
| | (상수) | 1.749 | .254 | | 6.891 | .000*** |
| | 자기의식적 | .288 | .075 | .206 | 3.834 | .000*** |
| | 타인의식적 | .090 | .062 | .078 | 1.450 | .148 |
| | R=.235 R ² =.055 F=9.952*** | | | | | |
| 외모 관리 행동 | (상수) | 2.308 | .216 | | 10.705 | .000*** |
| | 자기의식적 | .267 | .064 | .225 | 4.181 | .000*** |
| | 타인의식적 | .008 | .053 | .008 | 0.152 | .879 |
| | R=.227 R ² =.051 F=9.269*** | | | | | |
| | (상수) | 2.822 | .248 | | 11.372 | .000*** |
| | 자기의식적 | .184 | .073 | .137 | 2.502 | .013* |
| 피부 관리 | 타인의식적 | -.118 | .061 | -.106 | -1.941 | .053 |
| | R=.155 R ² =.024 F=4.197* | | | | | |

* $p < .05$, ** $p < .01$, *** $p < .001$ *

2) 자기에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대인관계 중 소극적태도 요인에 대한 자기에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523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74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549, 타인의식적은 .221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514, 타인의식적 .250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의식적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소극적태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식적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소극적태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타인의태도 요인에 대한 자기에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368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35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226, 타인의식적은 .271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232, 타인의식적 .336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의식적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타인의태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식적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타인의태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자기희생 요인에 대한 자기에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252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64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

하는 계수는 $-.117$, 타인의식적은 $.224$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108$, 타인의식적 $.251$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의식적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자기희생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식적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자기희생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과관여 요인에 대한 자기애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503$ 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53$ 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157$, 타인의식적은 $.366$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159$, 타인의식적 $.446$ 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의식적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과관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식적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과관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자기중심성 요인에 대한 자기애성향 회귀식의 유의성은 $.458$ 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10$ 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자기의식적에 해당하는 계수는 $.015$, 타인의식적은 $.344$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자기의식적 $.016$, 타인의식적 $.455$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타인의식적 요인만이 $p < .001$ 유의수준에서 자기중심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다는 최민경, 김종남(2010)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며, 이보영, 황매향(2014)의 내현적 자기가 외현적 자기에보다 높을수록 대인관계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라고 알 수 있다.

<표 12> 자기에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상수) | B | SE | β | t | sig. | |
|-----------|--------------|--------|----------------------|------------|---------|---------|-------|
| | (상수) | 3.365 | .170 | | 19.805 | .000*** | |
| 소극적 태도 | 자기의식적 | -.549 | .050 | -.514 | -10.914 | .000*** | |
| | 타인의식적 | .221 | .042 | .250 | 5.319 | .000*** | |
| | | R=.523 | R ² =.274 | F=64.540** | | | |
| | (상수) | 1.892 | .169 | | 11.201 | .000*** | |
| 타인의 태도 | 자기의식적 | -.226 | .050 | -.232 | -4.522 | .000*** | |
| | 타인의식적 | .271 | .041 | .336 | 6.545 | .000*** | |
| | | R=.368 | R ² =.135 | F=26.717** | | | |
| | (상수) | 2.477 | .195 | | 12.695 | .000*** | |
| 대인 관계 | 자기 희생 | 자기의식적 | -.117 | .058 | -.108 | -2.026 | .044* |
| | 타인의식적 | .224 | .048 | .251 | 4.697 | .000*** | |
| | | R=.252 | R ² =.064 | F=11.626** | | | |
| | (상수) | .859 | .160 | | 5.369 | .000*** | |
| 과관여 | 자기의식적 | .157 | .047 | .159 | 3.324 | .001** | |
| | 타인의식적 | .366 | .039 | .446 | 9.340 | .000*** | |
| | | R=.503 | R ² =.253 | F=57.886** | | | |
| | (상수) | 1.125 | .151 | | 7.429 | .000*** | |
| 자기 중심성 | 자기의식적 | .015 | .045 | .016 | .328 | .743 | |
| | 타인의식적 | .344 | .037 | .455 | 9.268 | .000*** | |
| | | R=.458 | R ² =.210 | F=45.514** | | | |

* $p < .05$, ** $p < .01$, *** $p < .001$

3) 외모관리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리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대인관계 중 소극적태도 요인에 대한 외모관리행동 회귀식의 유의성은 .134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18으로 확인되었으나, F 값을 분석한 결과 모형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체중관리에 해당하는 계수는 -.009, 헤어관리는 -.049, 성형관리는 -.018, 의복관리는 -.084, 피부관리는 .026 이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체중관리 -.010, 헤어관리 -.056, 성형관리 -.023, 의복관리 -.093, 피부관리 .033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요인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타인의태도 요인에 대한 외모관리행동 회귀식의 유의성은 .268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72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체중관리에 해당하는 계수는 .155, 헤어관리는 .017, 성형관리는 .109, 의복관리는 -.197, 피부관리는 -.01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체중관리 .190, 헤어관리 .021, 성형관리 .157, 의복관리 -.241, 피부관리 -.025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중관리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타인의태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관리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타인의태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관리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타인의태도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자기희생 요인에 대한 외모관리행동 회귀식의 유의성은

.116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14으로 확인되었으나, F값을 분석한 결과 모형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체중관리에 해당하는 계수는 -.036, 헤어관리는 -.038, 성형관리는 .082, 의복관리는 .017, 피부관리는 -.05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체중관리 -.040, 헤어관리 -.043, 성형관리 .106, 의복관리 .019, 피부관리 -.073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모든 요인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과관여 요인에 대한 외모관리행동 회귀식의 유의성은 .275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76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체중관리에 해당하는 계수는 .081, 헤어관리는 -.141, 성형관리는 .171, 의복관리는 .067, 피부관리는 -.038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체중관리 .097, 헤어관리 -.174, 성형관리 .241, 의복관리 .081, 피부관리 -.052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헤어관리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과관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관리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과관여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자기중심성 요인에 대한 외모관리행동 회귀식의 유의성은 .260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68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변수인 체중관리에 해당하는 계수는 .134, 헤어관리는 -.090, 성형관리는 .127, 의복관리는 -.077, 피부관리는 .032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력을 비교하면 체중관리 .175, 헤어관리 -.120, 성형관리 .195, 의복관리 -.100, 피부관리 .047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중관리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자기중심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형관리 요인은 $p<.01$ 유의수준에서 자기중심성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현옥, 구양숙(201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성향,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볼 때 대인관계성향의 각 유형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외모관리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인 | 독립변인 (상수) | B | SE | β | t | sig. |
|-----------|--------------|--|------|---------|--------|---------|
| 소극적 태도 | (상수) | 2.657 | .194 | | 13.698 | .000*** |
| | 체중관리 | -.009 | .056 | -.010 | -.167 | .868 |
| | 헤어관리 | -.049 | .061 | -.056 | -.800 | .424 |
| | 성형관리 | -.018 | .048 | -.023 | -.375 | .708 |
| | 의복관리 | -.084 | .059 | -.093 | -1.422 | .156 |
| | 피부관리 | .026 | .051 | .033 | .515 | .607 |
| | | R=.134 R ² =.018 F=1.238 | | | | |
| 타인의 태도 | (상수) | 1.764 | .172 | | 10.264 | .000*** |
| | 체중관리 | .155 | .049 | .190 | 3.147 | .002** |
| | 헤어관리 | .017 | .054 | .021 | .312 | .756 |
| | 성형관리 | .109 | .042 | .157 | 2.572 | .011* |
| | 의복관리 | -.197 | .052 | -.241 | -3.773 | .000*** |
| | 피부관리 | -.018 | .045 | -.025 | -.404 | .686 |
| | | R=.268 R ² =.072 F=5.246*** | | | | |
| 대인 관계 | (상수) | 2.782 | .197 | | 14.153 | .000*** |
| | 체중관리 | -.036 | .057 | -.040 | -0.638 | .524 |
| | 헤어관리 | -.038 | .062 | -.043 | -0.608 | .543 |
| | 성형관리 | .082 | .048 | .106 | 1.686 | .093 |
| | 의복관리 | .017 | .060 | .019 | .287 | .775 |
| | 피부관리 | -.058 | .052 | -.073 | -1.120 | .263 |
| | | R=.116 R ² =.014 F=0.929 | | | | |
| 과관여 | (상수) | 1.842 | .175 | | 10.541 | .000*** |
| | 체중관리 | .081 | .050 | .097 | 1.609 | .108 |
| | 헤어관리 | -.141 | .055 | -.174 | -2.573 | .010* |
| | 성형관리 | .171 | .043 | .241 | 3.966 | .000*** |
| | 의복관리 | .067 | .053 | .081 | 1.267 | .206 |
| | 피부관리 | -.038 | .046 | -.052 | -.833 | .405 |
| | | R=.275 R ² =.076 F=5.568*** | | | | |
| 자기 중심성 | (상수) | 1.684 | .162 | | 10.424 | .000*** |
| | 체중관리 | .134 | .046 | .175 | 2.892 | .004** |
| | 헤어관리 | -.090 | .051 | -.120 | -1.769 | .078 |
| | 성형관리 | .127 | .040 | .195 | 3.197 | .002** |
| | 의복관리 | -.077 | .049 | -.100 | -1.569 | .118 |
| | 피부관리 | .032 | .043 | .047 | .749 | .454 |
| | | R=.260 R ² =.068 F=4.916*** | | | | |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자기애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와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파악하고,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은 20~50대 여성 345명이었다. 통계 프로그램 SPSS 25.0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사용된 통계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30대,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분포는 경기지역, 지방, 서울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기혼, 별거/이혼 순으로 나타났고, 직업은 학생, 전문직, 주부, 사무직, 자영업, 판매 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10만원 미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변인의 요인분석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애성향은 자기의식적, 타인의식적으로 구분되었고, 외모관리행동은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로 구성하였으며, 대인관계는 소극적태도, 타인의태도, 자기희생, 과관여, 자기중심성으로 구분되었다. 전체 신뢰도 계수에 있어서 자기애성향은 0.798, 외모관리행동은 0.889, 대인관계는 0.922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셋째, 자기애성향, 외모관리행동, 대인관계와의 상관관계에서 자기애성향 중 자기의식적은 자기희생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식적은 헤어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성형관리는 소극적태도, 자기희생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의복관리는 자기의식적, 소극적태도, 과관여에 모두 유의하였고, 헤어관리, 피부관리는 타인의식적과 대인관계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중 소극적태도는 자기의식적, 타인의식적, 의복관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인의태도와 자기주심성은 헤어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자기희생은 자기의식적과 외모관리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관여는 헤어관리, 피부관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항목인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결혼여부, 직업,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중 최종학력에만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은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사후분석에서는 결혼여부만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인관계에서는 최종학력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지 모든 요인들은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의식적이 외모관리행동에 체중관리, 헤어관리, 성형관리, 의복관리, 피부관리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식적은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여섯째, 자기애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의식적은 대인관계 중 자기중심성을 제외한 소극적태도, 타인의태도, 자기희생, 과

관여에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타인의식적에서는 대인관계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외모관리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중 소극적태도와 자기희생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체중관리는 대인관계 중 타의의태도, 자기중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관리는 대인관계 중 과관여에서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의복관리는 타인의태도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성형관리는 타인의태도, 과관여, 자기중심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20~50대 여성의 자기에성향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의 외모관리행동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밝혀 뷰티산업 마케팅 전략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은 자기보고 방식으로써 응답을 방어적인 태도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기에성향 척도나 대인관계의 경우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음으로 답변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타인이 관찰하거나 평가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대인들의 자기에 현상은 복합적인 부분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자기에성향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며,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척도 개발 및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금미 (201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신체매력 지각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4), pp.969~990.
- 강숙영 (2003). 자기표출 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숙, 박현경 (2009). 뷰티살롱 고객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영향 관계. 한국미용학회지, 15(1), pp.363~373.
- 강윤경 (2004).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외모지상주의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영 (2002). 자기주도적 자기에 및 타인의존적 자기에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영, 이영호 (2006). 이차원 자기에 적도의 개발과 타당화_자기주도적 자기에 및 타인의존적 자기에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5(2), pp.397~415.
- 고애란 이수경 (2004). 여대생의 신체 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아존중감, 의복태도형성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11), pp.189~203.
- 권경미 (2009). 교양무용 참여 대학생들을 위한 우울증 및 대인관계(성격

- 장애) 척도개발과 적용.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영란 (2002). 자기애적 성향자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규리 (2016). 중년여성의 대인관계성향에 따른 추구이미지, 외모 및 패션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낙훈 (1990).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 김문수 (2004).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옥 (2014). 중년기 여성의 대인애착, 내현적 자기애 및 배우자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 (200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5), pp.99~108.
- 김성희 (2009). 여성의 연령별 화장 및 미용성형행동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디자인 & IT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선 (2003).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기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황,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21(2), pp.391~411.
- 김유성, 박옥련 (2009). 자기애 성향에 따른 집단별 외모관심도 및 미용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5), pp.808~817.
- 김유진 (2011). 상위-기분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2). 헬스참여 성인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우울 및 대인관계,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유진 (2016). 중년기의 노화불안, 가족건강성, 대인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혜 (2009).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취약성과 내재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숙 (2016). 외복소비가치에 따른 집단별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한국외류산업학회지, 18(5), pp.606~616.

김정숙 (2014).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종욱 (2010). 중년여성의 자기에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지윤 (2013). 외복행동에서 자기감시와 자기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훈 (2011).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해선 (2017). 외모관리행동과 외모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해정 (2004). 외모 관리: 자기에적 성격성향과 신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해정 (2008). 자기에 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외복소비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향숙 (2012).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올바른 식생활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 (2009).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진아, 이지영 (2019). 내현적 자기애와 외모관리행동의 관계.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9(2), pp.169~179.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송이, 채규만 (2012). 우울취약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능동적,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2(3), pp.349~891.
- 박수연, 황진숙 (2016). 패션/ 뷰티TV 미디어에 대한 태도가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초조형학연구, 17(5), pp.279~288.
- 박수진 (2006). 남성의 패션, 헤어스타일, 피부, 신체이미지에 관한 유형 분석 : 내용분석, 설문지법, Q방법을 통합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아 (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보여주기"의 미학. 한국심리학회지, 4(2), pp.105~127.
- 박은정, 정명선 (2010).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8(4), pp.717~730.
- 박은희 (2014).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환 (2013).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학급단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은혜 (2012). 자기애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효정 (2002). 3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민 (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가까운 사회적관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유나 (2016). 무용 예술 전공자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및 관리 행동이 무용 몰입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현신 (2007). 얼굴에 대한 미의식과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위혜정 (2008). 완벽주의가 내현적 자기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선미, 정재윤 (2011). 여성의 자기애 유형에 따른 네일 서비스 구매 행동과 만족 비교.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4), pp.268~282.
- 유제이 (2018). 대학생의 자기애 성향과 외모관심도가 피부·모발 인식과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 (2017). 직장인의 직업특성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 복식, 67(2), pp.17~35.
- 이명희 (2014). 중국유학생의 성인애착, 자아분화, 대인관계 및 대학생활 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지, 정성이, 안미선 (201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콤플렉스, 얼굴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9(3), pp.323~336.
- 이보영, 황매향 (2014). 초등교사의 자기애 성향과 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의 질의 차이. 초등상담연구, 13(4), pp.475~493.
- 이승희, 박길순 (2011).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 관리행동. 복식문화연구, 19(5), pp.1075~1087.

- 이유중 (2010).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매력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조 (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13). 내현적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 : 정서인식,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우, 염동문, 이미희 (2014). 대학생의 정서인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동장애연구, 30(2), pp.415~433.
- 이현옥, 구양숙 (2014). 대학생의 대인관계성향이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6(6), pp.888~896.
- 임효선 (2019). 자기애 성향과 외모관심도가 미용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봉실 (2017). 중학생의 외모만족도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진 (2007). 애착이론에 근거한 대인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민영 (2013). 대학생의 정서표현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주원 (2006). 몸의 소비문화적 의미와 현상에 대한 고찰. 소비문화연구, 9(1), pp.83~101.
- 정효현, 김정남 (2011).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향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신체만족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pp.1599~1611.

- 조선영 (2014). 성인여성의 생활연령과 지각연령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영희 (2009).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애적 성향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4(1), pp.217~242.
- 최민경, 김종남 (2010). 청소년의 자기애 성향과 대인관계 문제 사이에서 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5(4), pp.747~763.
- 최인선, 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pp.2815~2831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2(2). pp.479~492.
- 최지현 (2011). 대학생의 성별 및 자기애성향이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 장문선 (2010).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pp.539~553.
- 하종경 (2009). 외모관리동기에 따른 의복 및 화장행동.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pp.385~396.
-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애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29(4), pp.1135~1143.
- 허준보 (2012). 페이스북 이용자의 나르시시즘적 자기표현과 외모관리, 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2003).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7(4), pp.17~25.

<인터넷 자료>

두산백과 :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5683 (검색일: 2019, 10, 10)

통계청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2 (검색일: 2019, 10, 14)

ABSTRACT

Effect of Narcissistic Tendency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i-Hyun Song

Make-up 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ople in modern society live in a self-centered, individualistic, that is, narcissistic era. One of their characteristics is that they invest a lot of time and effort in appearance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narcissistic tendency of women who have participated more on social activities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a research method, a survey using a questionnaire was used. Narcissistic tendency consists of self-conscious factor and other-conscious facto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consisted of five factors: weight management, hair management, cosmetic management, clothing management, and skin manag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sisted of five factors: passive attitude,

attitudes of others, self-sacrifice, overinvolvement, and self-centeredness. The demographic variables used were age, place of residence, marital status, final education, occupation, average monthly income, and monthly average appearance management costs. Data was collected from October 21, 2019 to November 4, 2019, and survey respondents were 345 women in their 20s to 50s living in Seoul, Gyeonggi-do, and the provinc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with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age was the most in 30s and the place of residence was the most frequent in Gyeonggi-do. Respondents' final education was high in university graduation. The percentage of single women was high, and the percentage of students was high. The average monthly income was less than 1 million won. The monthly average appearance management cost was the highest at less than 100,000 won.

Second, in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narcissistic tendency was 0.798,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as 0.889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re 0.922, which showed high reliability.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narcissistic tendency,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conscious factor among narcissistic tenden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ll factors except self-sacrifice. The

other-conscious factor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factors except hair management, clothing management and skin management. Among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weight management and cosmetic managemen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ll factors except passive attitude and self-sacrifice. Clothing management had correlation with self-conscious factor, passive attitude and overinvolvement. Hair management and skin management we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other-conscious factor and all oth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narcissistic tend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age, place of residence, marital status, occupation, monthly average income, and monthly average appearance management, except for final education. There were difference according to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all demographic factors.

Fifth, the effect of narcissistic tendency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showed that self-conscious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ll factors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the other-conscious factor had only significant effect on weight management among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Sixth, in the influence of narcissistic tendenc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conscious factor showed significant results on passive attitude, attitude of others, self-sacrifice, and overinvolvement except self-centeredness, and other-conscious factor was significant on all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venth, passive attitude and self-sacrifice were not significant in the influenc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eight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of others and self-centeredness. Hair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overinvolvement. Clothing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ly on the attitudes of others. cosmetic manage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ttitude, overinvolvement and self-centeredness of others.

As concluding the above findings, narcissistic tendency of women in their 20s to 50s influenced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higher the narcissistic tendency, the more influence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women increase their social activities,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come more active, leading to more effort and interest in their appearance management. Therefore, by identifying the narcissistic tendency of women in their 20s to 50s who are actively entering the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present the basic data of influence relations i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hopefully contribute to the fashion and beauty industries.

부록.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문지는 자기애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소중한 내용은 모두 함께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13조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연구자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짐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답변은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연구자 : 송지현

(delos1104@naver.com)

지도교수 : 김경희 교수

I. 다음은 자기애성향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1개만 표시(✓) 하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 지 않다 ① | 그렇 지 않다 ② | 그저 그렇 다 ③ | 그렇 다 ④ | 매우 그렇 다 ⑤ |
|----|---|--------------------------|--------------------|--------------------|--------------|--------------------|
| 1 | 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의 자존심을 누군가가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어떤 결정을 내 책임하에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사람들에게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내 주장이 강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는 인정받고 지지 받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럴 경우 나도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여러 사람에게서 나는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다가 때로는 너무나 좋아지는 등 나는 갈등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리더가 되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II. 다음은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1개만 표시(✓) 하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 지 않다 ① | 그렇 지 않다 ② | 그저 그렇 다 ③ | 그렇 다 ④ | 매우 그렇 다 ⑤ |
|----|---|--------------------------|--------------------|--------------------|--------------|--------------------|
| 1 | 나는 유행하는 스타일의 옷을 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신경을 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머리손질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얼굴 피부마사지를 자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다이어트방법(단식, 절식, 약품사용)을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나는 머리 염색이나 파마 등을 하며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꾼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성형수술은 신체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내가 소유한 옷과 잘 어울리는 것을 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나는 다이어트를 하기위해 음식을 안 먹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형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여드름 관리를 위해 피부미용실이나 피부과에 다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입은 옷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나는 헤어스타일링 제품인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 등을 자주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나는 자주 머리를 드라이하고 다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성형을 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헤어 영양 제품(헤어 에센스, 헤어 영양크림 등)을 자주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 밖에 나갈 때 반드시 얼굴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사용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 | 피부관리를 위해 매일 기능성화장품(아이크림, 에센스, 미백크림 등)을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Ⅲ. 다음 대인관계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1개만 표시(✓) 하십시오.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 지 않다 ① | 그렇 지 않다 ② | 그저 그렇 다 ③ | 그렇 다 ④ | 매우 그렇 다 ⑤ |
|----|--|--------------------------|--------------------|--------------------|--------------|--------------------|
| 1 |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다른 사람에게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나는 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나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나는 지지해 주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나는 느끼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다른 사람에게 친근감을 나는 느끼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다른 사람의 요구를 나는 먼저 들어주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어려워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나는 같이 기뻐하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나는 표현하기가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당당하지 못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자리를 나는 자주 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나는 다른 사람과 마찰이 있을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잘 믿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번호 | 내용 | 전혀 그렇 지 않다 ① | 그렇 지 않다 ② | 그저 그렇 다 ③ | 그렇 다 ④ | 매우 그렇 다 ⑤ |
|----|---|--------------------------|--------------------|--------------------|--------------|--------------------|
| 21 | 나는 내 주장만 너무 내세울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누가 나에게 의지할 때 나는 받아주기 싫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나는 너무 잘 속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나는 지나치게 애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5 |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나는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6 | 나는 너무 존경받고 싶어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7 |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주 조정하거나 이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8 |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나는 참견하고 싶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9 | 나는 친한 사람에게 너무 매달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 | 의견 차이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 |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불행을 보면 나는 도와주려고 너무 나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3 |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4 |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나는 너무 쉽게 따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5 | 나는 늘 주목받고 싶어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6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무 긴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7 | 뚜렷한 주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너무 많이 끌려 다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8 |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나는 너무 많이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9 |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주 이용당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0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IV. 다음 항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표시(✓)를 빠짐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문 항 | |
|----|---------------------------|--|
| 1 |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
| 2 | 귀하의 거주지역은? | ① 서울 ② 경기 ③ 지방 |
| 3 | 귀하의 최종 학력은?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이상 |
| 4 | 귀하의 결혼 상태여부는? |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이혼 |
| 5 | 귀하의 직업은 ? | ① 사무직 ② 판매 서비스직 ③ 전문직 ④ 자영업 ⑤ 주부 ⑥ 학생 |
| 6 | 귀하의 한 달 평균 수입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 7 | 귀하의 한 달 평균 지출한 외모관리비는? | ① 10만원 미만 ② 10만원~20만원 미만 ③ 20만원~30만원 미만 ④ 30만원~40만원 미만 ⑤ 40만원 이상 |

- 긴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